



NSV의 '구조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

“진동 흡수력 2배 이상 뛰어난 프리미엄 매트”

특수 완충재 넣어 소음까지 잡아 주상복합 등 고가주택 시장 수요 급증

NSV(사장 윤은중·사진)의 '구조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HD-MAT)'는 저주파 진동까지 흡수해 진동으로 인한 구조소음까지 막아주는 '프리미엄 매트'다. 지난해 NSV의 매출(202억원) 15%를 책임진 효자상품이다.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든 방진매트를 국산화한 뒤 특수 첨가제를 더해 고감쇠 방진매트를 만들어냈다. 윤은중 사장은 “진동을 흡수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며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든 방진매트가 자동차 서스펜션(충격흡수장치)의 스프링이라면 구조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는 쇼바(쇼크 업소버) 역할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충간소음을 잡아주는 방진매트
윤 사장은 1986년 설비제조업체인 두진 산업을 창업한 뒤 1994년 NSV로 상호를 변경하고 인천으로 공장을 옮겼다. 그는 “두진산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꼬박 29년 동안 오로지 소음·진동 방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한우물만 쏘았다”고 했다. 구조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 역시 이런 전문성의 결과물이다. 윤 사장은 2008년 한국신발

피혁연구원으로부터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충격흡수 첨가제를 공동 개발하자는 의뢰를 받았다. 마라톤화에 들어가는 ‘알파겔’이 대표적인 신발 완충재다. 그는 이 같은 완충재를 건설·플랜트 분야에 적용, HD-MAT를 개발해냈다. 점탄성 소재로 외부 충격을 열에너지로 변환해 흡수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윤 사장은 “HD-MAT는 EVA(탄성을 강화한 스펀지 소재) 패드, 폴리우레탄 매트, 발포고무 패드 등 다



른 소재들에 비해 무게는 두 배가량 진동 전달률이 낮다”고 말했다.

◆“소음·진동 방지 시장은 블루오션”
윤 사장은 “한국은 고층 건물이 조밀하게 모여 있어 지하철 진동이라든지 층간 소음에 유독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건축 시장의 급화 트렌드가 정숙성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어 방진매트 수요가 크게 늘어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소음·진동 방진매트 시장 규모는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방진매트는 건물 하부 구조에 들어가서 시공 후 매립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하다. 윤 사장은 “HD-MAT는 탄성내구 수명이 기존의 EVA나 발포고무매트에 비해 5배 정도 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이 m²당 25만원으로 일반 EVA 소재 제품에 비해 5배가량 비싼 게 흠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등 고층 건물 기계실과 지하철 인접 건물의 기초와 측면에 주로 사용된다.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서울 마곡지구의 고층 건물이나 해운대 등의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다. 윤 사장은 “현재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탄성 강화를 위해 들어간 특수 첨가제 국산화를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소음·진동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NSV는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엔 대학원 학비의 50%,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엔 100%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6명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누렸고 올해 추가로 3명이 대학원 입학 앞두고 있다.

인천=추기영기자 gychu@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NSV의 구조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HD-MAT) (032)812-2015 △휠보레의 자동차 바퀴 보호장치 ‘휠보레’ (02)2263-2239 △엔티씨코의 전자레인지용 압력솥 ‘엔티씨코’ 070-4157-6716 △에어택의 e나노 필터 공기청정기 (031)798-5676

보고펀드, 바디프랜드 인수 추진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최대주주·기관지분 인수 협상 바디프랜드, 경영권 매각 부인



사모펀드 운용사인 보고펀드가 국내 안마의자 1위 업체인 바디프랜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바디프랜드 최대주주인 조경희 사장, 재무적 투자자 등과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펀드는 조 사장의 지분 46.7%를 비롯해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지분 일부도 함께 사들이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트리니티PE(SBI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LB인베스트먼트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5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종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추성훈 안마의자’ (사진)로 유명세를 탄 업체다. 2007년 설립됐으며 2010년 340억원이었던 매출은 2013년 78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15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영업이익 181억원, 순이익 128억원을 기록했다.

보고펀드는 바디프랜드의 렌털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프랜드는 기존 고가의 안마의자 시장에 렌털(대여) 개념을 도입해 큰 성공을 거뒀다. 최근에는 안마의자뿐 아니라 천연라텍스 침대 매트리스, 현미도정기 등으로 렌털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정수기 렌털 시장에도 진출했다. IB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기업 가치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바디프랜드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할 당시 매각 가격은 주당 3만5000원대였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바디프랜드 기업가치는 1700억원 수준이다. 올 들어 장외 거래 가격이 4만원 이상으로 급등한 데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주당 매각 가격은 지난해 거래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바디프랜드가 추진하려던 기업공개(IPO) 작업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핵심 관계자는 “보고펀드가 바이아웃 딜을 주로 하는 사모펀드라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매각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펀드가 기관 지분 매입 추진과 함께 신규 유상증자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하수정/안재광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드 3월1일 오후 4시41분

중견기업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짜 ‘속내’는...

뉴스카페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신분 변동’이 생기고 있다. 중견기업에 포함됐던 업체가 다시 중소기업군으로 내려가거나 하면 중견기업으로 승격된 한 회사는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연)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도자기 등 19개 중견기업을 회원사에서 제외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이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에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규모 등 여러 기준으로 분류했으나 올해부터 기준이 단순화됐다.

이에 따라 한때 중견연에서 부회장사를 맡았던 한국도자기는 협회 자격을 잃어 강등됐다. 한국도자기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400억원대에서 정체돼 있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중견기업 탈락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며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게 경영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글과컴퓨터는 2012년 중견기업이 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중소기업이 됐다. 이 회사의 3년 평균 매출액은 700억원대 초반이다.

‘강등’된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된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중견, 중소기업 신분 변화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이 달라지기 때문.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으로는 법인세율 차등적용, 특별세액 감면 혜택,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이 있다. 특별세액 감면은 지역과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5~30%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결코 기쁜 것만은 아니다. 각종 보조정책이 있는 공공시장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남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과거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을 정하다 보니 규모가 커진 기업도 이 같은 투입지표를 조정해 중소기업 지위에 머무르며 혜택을 계속 받으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를 방지하고 활발한 고용창출을 위해 기준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수는 3846개, 매출액은 629조4000억원, 총 고용 인원은 116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9.7%를 차지한다.

김경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중진공, 13일까지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돕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제품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진공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다.

또 전문가 진단과 사업화 기획 지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선정된 기업에 사업화에 드는 전체 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창업기술처(055-751-9853)로 문의하면 된다.

추기영기자 gychu@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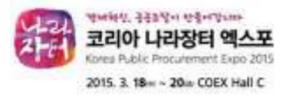
중기청, 히든챔피언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해 기업여량에 따라 도와 단계와 성장 단계로 나눠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도와 단계에서는 매출액 100억~1000

억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기업 30곳이 지원 대상이다. 중기청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전 광주 부산 수원 대구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모십니다 —

조달제품 한눈에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3월18~20일 ●장소: 서울 코엑스 C홀 ●전시품목: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MAS(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신기술 인증제품 등(전기전자관 사무기관 건설환경관 기계장치관 새싹기업관 안전제품전시관) ●문의: 사무국 (070)7017-7512, 정보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홈페이지(www.koppex.com)

한국경제신문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엮는다. 전문가를 위한 구매 실무 교육,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주최·한국경제

종이의 유산을 찾아 '인내의 일기'편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

"Papier alt ein Mensch Sie hängen besser dran."
- '인내의 일기' 중 한 페이지 (1929-1945)

인내 프렐크, 《인내의 일기》 출판로 옮김, 문학시공사, 1995

어두운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어린 소녀가 붙잡은 이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종이에 절박하게 남겼던 그녀의 바램이 이 세상에서는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유! 양심! 평화! ...
또한 우리 모두도 종이에 기록을 남기며,
종이 유산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만나며,
더 깊고, 더 따뜻한 감성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국 최초 종이 회사—
PAPER COREA
www.papercorea.co.kr

“119픽”
스마트폰 충전서비스
단 한번의 충전 서비스!
감동의 시작입니다

재용 및 서비스 문의 : (주)119픽 02-3140-0340
홈페이지 : www.119pick.co.kr